김영록 전남지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행복시대 큰 힘"

화순서 어울 한마당…취약계층 복지증진 다짐

"자긍심·보람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도내 취약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네가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어울한마당'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쓰는 복지기동대를 이같이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 불편을 찾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해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동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22개 시·군 복지기동대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복지기동대원들은 허름한 집을 새집으로 고치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어울림 체육행사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며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복지기동대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전남의 명품 복지시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지기동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우리동네 SOS' 운영 활성화, 위기가구 지원 콜(120번)과 연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정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와 내빈들이 12일 오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한마당행사에서 복지기동대 집수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 어가 감소에도 청년 어가 비율 증가…완도 최고

전국적으로 어가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기준 전남 청년어가의 비중은 전국 청년어가의 52.4%로 20년 전비율(33.2%) 대비 1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2일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난 20년(2000~2020)간 전남의 청년어가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2000년 대비) 우리나라 전체어가 수는 47.1%, 청년어가 수는 86.3% 감소했고, 전남은 각각 42.2%, 78.3% 감소했다.

또 청년인구의 이촌향도 영향으로 전체어가 대비 청년어가 평균 비중은 2000년 10.8%에서 2020년은 2.8%로 급감했다.

이처럼 매년 어가인구 감소 속에 지역별 전체 어가 대비 청년 어가 비중은 2000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한 반면 전남은 33.2%(20000년)에서 52.4%(2020년)로 20년 전 대비 19.2%p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남 시·군별 전체어가 비중을 살펴보면, 완도(22.6%), 여수(15.9%), 신안(14.6%), 고흥(10.4%), 진도(6.3%) 등 순으로 높았고, 청년어가 비중은 완도(47.9%), 해남(10.0%), 진도(9.5%), 신안(9.0%), 고흥(6.6%) 순 등으로 컸다.

지난 20년(2000~2020)간 전남 시·군별 대비 청년어가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완도(23.1%p)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 김태형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 분야 청년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어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여전히 청년귀어인의 어촌 진입 장벽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슬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과 더 대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주민협의회체와 다시한번 만난 뒤 광주시의 종합적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어 "지난 8일 주민협의체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한번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주민협의체와의 대화는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수심과 수량 변동없이 수질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TF(전담팀)안이 과연(풍암호수의) 원형을 훼손시키는 것인지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풍암호수 수질 개선·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수질 환경전문가 4명·공무원 4명·민간사업자 2명·농어촌공사 1명이 참여하는 풍암호 수질개선 TF를 꾸렸다.

TF는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공식 회의(5회)와 실무자 회의(14회) 등을 거쳐 자연정화식 수질 개선안을 내놨다. 수위를 줄이고, 주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을 보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TF 개선안대로라면 호수 평균 수심은 현재 2.8m(최고 수심 4.2m)에서 1.5m(최고 수심 2.5m)로 낮아진다. 매일 지하수 관정 등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이 유입된다.

하지만 일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광주시의 개선안에 반대하며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서선옥 기자

슈퍼 엘니뇨 온다…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장마 선제적' 대응

저수지·배수장·배수갑문·시공현장별 대응 체계 확립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장마철에 대비 배수펌프장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올 여름 슈퍼 엘니뇨 발생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풍수해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12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위기징후 감시체계 가동과 함께 지난달 초 재해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 취약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관리 저수지 1056곳, 배수장 149곳, 방조제 77곳 등 전체 수리시설 1282곳과공사 현장 110곳, 급경사지 현장 96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완료하고 중점 관리에 돌입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인 가뭄 대응 체계를 운영해 영농기 차질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한 가운데 다가올 장마에 대비해서도 신속히 풍수해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준비 태세를 갖춰다.

상황별로 관내 저수지 1056곳에 대해 홍수기간과 집중호우 예보 시 저수율을 75% 이하로 관리토록 설정했다.

유역 배율이 높거나 하류부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 31곳엔 간이 방류시설을 오는 30일까지 설치해 우기에 대비할 방침이다.

배수장엔 가동 인원을 사전 배치하고, 낙뢰 등에 의한 전원 차단으로 가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엔진 양수기 동원 등의 대책도 수립했다.

배수갑문은 갑자기 불어나는 유입 수량에 대비해 퇴적토를 준설하고 수문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사전 수위 조절 등의 대비 훈련을 통해 조작 숙련도를 높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현대삼호重, 안전문화 정착 위한 '외국인의 달' 행사 개최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존 임직원과의 화합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6월 한 달을 '외국인의 달'로 정하고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9일 베트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날, 23일은 네팔의 날, 30일은 태국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 날짜에는 각국의 대중음료가 전 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다.

사내 매체를 통해서는 각 나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당 국가의 근로자와 각국의 문화 등을 알리고, 해당 직종에 맞는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사내방송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편성해 회사 생활 중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방영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한국의 날'을 운영해 대한민국 전통음식인 식혜와 약과를 나눔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광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93번지
2.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2023년 6월 13일부터)
3.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파묘·화장하여 봉안시설(청계동 묘원) 10년 안치

신고처 : 010-3611-2575 위공고인: 토지주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